

## 출가자 급감 시대, 출가정책도 바꿨다

‘사찰은 많은데 상주할 스님이 없다’는 불안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출가자가 나날이 감소 추세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출가자는 476명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줄고 있는 중이다. 실제 2011년 268명이었던 출가자는 2012년에는 219명으로 푹 떨어졌다.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출가자 수가 줄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기본교육기관이다. 매년 출가자 절반 가량이 16개 지방 승가대학에 진학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해인사, 통도사 등 대형사찰의 승가대학으로 몰려 소규모 승가대학은 학인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계종 교육원은 학년당 기본 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승가대학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교육기관 조정에 들어갈 것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출가자 감소로 인한 소규모 지방 승가대학의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수계교육 기수별 출가자 현황

년도	수계 기수	인원 합계	
		기수별	년도별
2001년	2071	245	476
	2171	231	
2002년	2271	218	406
	2371	188	
2003년	2471	226	373
	2571	147	
2004년	2671	136	297
	2771	161	
2005년	2871	154	326
	2971	172	
2006년	3071	145	334
	3171	189	
2007년	3271	198	363
	3371	165	
2008년	3471	149	287
	3571	138	
2009년	3671	116	266
	3771	150	
2010년	3871	147	281
	3971	134	
2011년	4071	117	268
	4171	151	
2012년	4271	104	219
	4371	115	

### 2000년 476명 출가했지만

지난해 219명으로 감소

### 승가대 학인 채우기 급급

### 청소년·단기출가법 제정

### 20대 청년출가학교 개최

### 적극적 출가 정책 전환

### 장기적 전담기구도 필요

통해 출가한 스님이 적지 않지만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으로 이어지는 포교 라인이 무너지면서 어릴 때부터 불심을 키우며 발심출가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게 됐다.

### 출가, 사이트 등 적극적 정책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조계종의 출가 정책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지난 조계종 중앙총회 194차 임시회에서 제정된 ‘청소년 출가,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는 중앙총회 차원의 출가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되고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회의를 거듭해 나온 결과물이다 더욱 눈길을 끈다.

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년과 청년

출가도 증법상 인정됐으며, 단기출가도 출가의 유형의 포함된다. 소년출가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종단 등록 사업으로 출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이 종립사학과 군법사 지원 시 우선 선발 등의 장학 혜택이 제공된다.

단기출가 운영 사찰은 교구본사별로 둘 수 있게 됐으며, 단기출가자가 1년 이상을 수행생활하고 정식 출가절차를 밟을 경우 종단에서 시행하는 2주간의 교육과 5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후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조계종 청년출가학교는 출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다. 올해까지 2기에 걸친 출가학교를 통해 9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으며, 올해에만 남자 참가자 2명이 출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처음 개설한 출가 사이트도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에만 리뷰가 100만 건에 달했고 2011~12년 출가자 중 25%에 달하는 인원이 출가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받고 출가 발심을 굳혔다.

조계종 교육원 김병주 차장은 “이제는 출가 정책도 기다리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원의 출가정책도 이 같은 기조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 출가 활성화위한 대안은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종교 성직자의 감소는 추세인 상황에서 출가 활성화 정책은 ‘양보다 질’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의 대사회 활동의 폭이 넓어진 만큼 능력 있는 출가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출가자가 늘어나건 감소하건 간에 출가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좋은 자질과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출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계층 포교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균중법, 종립학교 등 기존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출가학교를 연 2회 확대 시행하고 출가사이트에 실시간 상담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 확대를 모색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출가 정책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교육원에 증설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무명초를 잘라내고...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전남 해남군 미황사에 내려놓고 바라본다란 주제로 열린 청년출가학교. 9일 동안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 43명의 참가자 중 한 명은 그동안 답수룩했던 마음도 함께 ‘삭발’했다. 마지막 날, 그는 “가슴이 먹먹하다”며 “참가자들 모두가 멋있고 존경스럽고 빛나는 사람들이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3면)

글=배현진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교육원

## 종교편향 지적에 사과 잇달아

### 총북교육청 “채용 차별 없다”... 국방부, 기도문 교체

최근 불거진 신앙을 통한 국회의원 인사청탁과 군부대의 특정종교 식사 기도문에 대한 불교계의 비판에 해당 단체들의 해명과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총북교육청은 7월 8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 회신한 공문을 통해 “오세재 민주당 의원의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와는 별도로 인사채용 과정에서 종교,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어떤 차별도 없다”고 해명했다.

제50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의 식사기도문이 특정종교 편향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국방부가 전체 군부대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신종일 기자

### 사령

배현진

명) 편집국 취재부 기자  
2013년 7월 10일 부

## 前 조계종 원로의원 도견 스님 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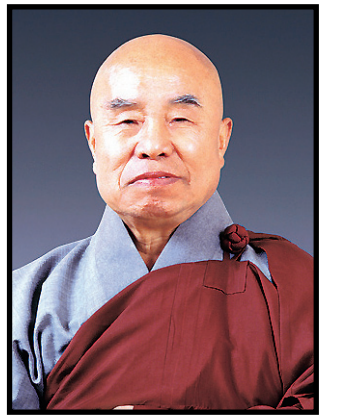
### 12일 해인사 극락전서... 16일 영결·다비식

前 조계종 원로의원 도견 스님이 7월 12일 새벽 1시 30분 해인사 극락전에서 입적했다. 법랍70세 세남 89세.

스님의 장례는 종단 장례에 관한 령에 따라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5일간 치러졌으며, 영결식과 다비식은 7월 16일 해인사에서 봉행됐다.

1925년 강화도 화전면에서 태어난 도견 스님은 1944년 19세에 오대산 동관암에서 지월 스님을 만나 출가했으며, 1945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3년간 교학을 배웠다. 이후 범어사 3년 결사를 비롯해 해인사, 송광사 등 유수의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효봉 스님, 청담 스님, 동산 스님, 구산 스님, 경봉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평생 선원에서 정진한 도견 스님



은 성철 스님이 ‘부처님 밭값 좀 해라’는 권유를 받아 2년간 해인사 주지 소임을 살기도 했다. 또 1980년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 대흥사 광사 등 유수의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효봉 스님, 청담 스님, 동산 스님, 구산 스님, 경봉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차주상보)

신종일 기자

## 불교 학술 및 창작 콘텐츠 모집한다

### 동국대·진흥원, 4회 대원불교문화상 공모

대한불교진흥원과 동국대가 불교는문이나 저술, 콘텐츠 기획과 시나리오를 공모한다.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원장 이종대)과 대한불교진흥원(원장 김규철)은 9월 30일까지 제4회 대원불교문화상을 공모한다.

대원불교문화상 공모는 불교학술과 불교창작 두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불교학술분야에서는 불교를 주제로 불교 발전을 위한 불교학 관련 논문 및 저술을 대상으로 동국대 재직 시간강사 또는 연구원이 응모할 수 있다.

불교창작분야는 불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소재이면 출품 가능하다. 동국대 연구원, 재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총 시상금액은 1900만원으로 1인

1분야 1개 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dongguk.ac.kr/tricc)에서 확인 가능하다. (02)2264-3696 노덕환 기자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 949호 INDEX

시방세계  
야단법석 시즌3 현장

5

해의  
‘중국 템플스테이’ 1천여명 참여 주목

18



##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돼라

##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용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날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돼라

**판매처: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